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1.20~20.01.31)

### □ 2020년도 제1회 민관 협력 기반정비추진 조사비 모집[1/20]

- 국토교통성은 1월 20일(월)부터 2월 14일(금)까지 민관 협력 기반 정비 추진 조사비의 안건 모집을 실시함. 각 지역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특색있는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연계하여 민간 설비투자 등 관에 의한 기반정비를 함께 실행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지역전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정비 구상단계에서 사업실시단계까지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원함.
- 민간의 설비투자 등과 함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가 추진하는 기반정비(국토교통성 소관의 도로, 해안, 하천, 항만, 도시공원, 공항 등의 공공토목시설) 사업화의 검토를 지원. 구체적으로는 시설정비 내용에 관한 조사(기초 데이터 수집, 수요예측, 개략설계, 정비효과 검토 등) 및 설비 정비·운영방법에 관한 조사(PPP/PFI 도입 가능성 검토) 비용의 50%를 지원.
- PPP/PFI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 □ 홋카이도·동해 측 항만과 러시아 극동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견 교환회 개최[1/20]

- 국토교통성은 홋카이도·동해의 항만과 러시아 극동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과제 파악을 위해 1월 21일 러일 관계자 사이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함.
- 항만관리자, 중계자, 민간기업,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등 약 80명이 참가하여 러·일 정부 간 활동개요,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한 러·일·유럽 간의 화물 실증운송 개요 등을 토의할 예정

### □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가칭) 히가시사쿠라 1초메 1번지구 건설사업)을 확정[1/24]

- 국토교통성 장관은 2020년 1월 24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부로 NTT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청한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가칭) 히가시사쿠라 1초메 1번지구 건설사업)에 대해 인정함.
- 본 사업은 점포, 컨퍼런스 홀을 갖추고, NTT그룹의 최선진 ICT를 집결한 선진 오피스빌딩의 기존의 건물과 일체하여 정비하고,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도시기능 향상을 꾀하고, 매력있는 거리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함. 또한 광장과 녹지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주변 공원이나 센트럴파크 지하거리 등 공공공간과의 기능연계를 진행함.
- 장소는 아이치현 나고야시 히가시구 히가시사쿠라 1초메 101번지,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예정.
- 계획이 승인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금융지원, 조세특별조치법 및 지방세법에 기반한 세제상의 특례조치 등이 적용됨.

## □ 건설 근로자 수급 조사 결과(2019년 12월 조사)[1/27]

- 본 조사결과는 2019년 12월 10일~20일까지 간 1일을 조사대상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9% 부족, 12월은 1.5% 부족하여, 부족률이 0.4% 감소하였다.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5%부족, 12월은 1.4%부족하여 부족률은 0.1% 감소함.
- 전국에서 8직종은 1.5%부족하며, 특히 거푸집공(토목) 및 비계공에서 2.6%로 부족률이 큼. 미장(2.5%), 거푸집공(건축)(2.0%)의 부족률도 큼. 철근공(건축)은 8직종 중 유일하게 과부족률이 +를 기록하고 있음(+0.9%).
- 지역으로 봤을 때 부족률이 큰 지역은 추우고쿠 지방(히로시마 등), 큐슈 지방(후쿠오카 등), 홋카이도 지방(삿포로 등)으로 각기 3.0%, 2.9%, 2.4%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 내진 환경 부동산 형성 촉진 사업 실시 요령의 개정에 대해[1/28]

- 국토강인화 연차계획 2019(2019년 6월 국토강인화 추진본부 결정)에서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 2025년에는 내진성이 부족한 건축물이 거의 없도록 대처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내진화가 요구되므로, '내진·환경부동산 형성촉진사업 실시 요령'을 개정하여,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후에 일정 환경성능을 가지는 것을 내진·환경 부동산형성 촉진사업\*의 출자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내진·환경 부동산형성 촉진사업 : 노후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리스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내진·환경성능을 가진 양질의 부동산 형성(개수·재건축·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거리만들기 및 지구온난화 대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 □ 「텔레워크 데이즈 2020」 실시방침 결정에 대해[1/29]

-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은 관계 부처, 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재택근무 보급 확대 및 도쿄올림픽 대회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텔레워크 데이즈를 실시하고 있음.
- 그 3회째인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 6일의 기간 동안 2,887단체, 약 68만 명이 참가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있음.
- 1월 29일 개최된 텔레워크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는 2020년은 도쿄올림픽 개최기간을 포함하여 7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텔레워크 실시를 호소하는 것을 결정. 도쿄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가운데 10%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용할 것을 권고. 26개 부처 국가공무원 2019년 35,38명이 재택근무를 적용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